

코로나로 지친 마음 온라인 공연으로 힐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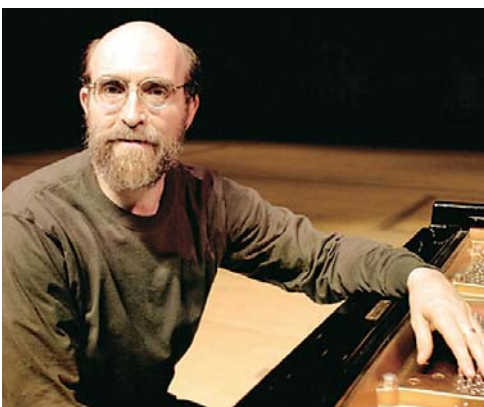
29일 조지 윈스턴 무료공연 무용극 '검찰관' 연극 '오네긴' 뮤지컬 '엑스칼리버'도 무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얼얼한 공연계가 유튜브, 네이버TV 등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올 연말, 코로나 19를 피해 무용극, 오페라 등을 집에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아트센터 나비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주한독일문화원과 함께 음악, 기술, 예술을 연결한 텔레마틱 퍼포먼스를 27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선보인다. 제목은 '뉴로-니팅 베토벤(NEURO-KNITTING Beethoven)'. 텔레마틱 퍼포먼스란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예술 퍼포먼스를 말한다.

이날 퍼포먼스는 미디어아티스트 듀오 바베라 & 마르의 '뉴로니팅' 작업을 기반으로 했으며 감상자의 뇌파를 통해 베토벤 음악의 영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자 기획했다. 한국에서 피아니스트 박종화 서울대 교수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과 '바가텔 제25번 엘리제'를 위해 '여'를 연주한다. 감상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인 오심 스님이다. 감상자의 뇌파 자료가 현재 에스도니아에 있는 작가들에게 전송되고, 니팅 머신을 통해 작품이 만들어진다.

LG아트센터는 2020년 기획공연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검찰관'과 '오네긴'을 LG아트센터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유료로 상영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공연이 온라인서 관객과 만난다. 사진은 무료 자선연주회를 여는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왼쪽)과 무용극 '검찰관' 공연 모습.

파이프의 무용극 '검찰관'은 27일과 28일 볼 수 있다. 공연은 90분간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19세기 초 러시아 소도시를 방문한 하급 관리자가 마을을 조사하러 온 검찰관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려낸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풍자극이다. 캐나다 출신 안무가 크리스탈 파이프의 손길을 거쳐 지난해 무용극으로 재탄생된 이 작품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연극 '오네긴'은 12월11~12일 공개된다. 알렉산드르 푸슈킨의 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티모페이 콜라빈이 연출했다. 작품은 러시아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2014년 러시아 골든마스크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삶의 권태에 사로잡힌 젊은 귀족 예브게니 오네긴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 타티아나 사이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를 시적인 운율에 담아 독특하게 그려냈다.

따뜻하고 감미로운 선율이 사랑받는 미국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은 아시아 팬들을 위해 자선연주회를 연다. 공연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조지 윈스턴의 공식 유

튜브 채널 또는 공연 실황 페이지(youtu.be/CVnNwNQmLQ)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80분간 열리며, 이후 30분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에 국제 난민구호기구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을 위한 기부 링크가 게시된다. 스스로 '자연주의 피아니스트'라 칭하는 윈스턴은 대중에게 평온과 휴식을 주는 음악을 선사해왔다. 앨범 수익금을 9~11 테러 피해자나 태풍 카트리나 피해자, 암 연구단체 등에 기부해 '치유의 음악가'로도 불린다.

국립합창단은 '헨델의 메시아'를 네이버 TV 국립합창단 채널을 통해 유료로 처음 생중계한다. 12월1일 오후 7시30분. 올해 '메시아'는 짜임새 있는 음악적 형식과 특색 있는 무대장치로 기존 오라토리오와의 차별성을 더해 작년과는 다른 극적인 묘미를 선사한다.

제1부 '예언, 탄생', 제2부 '수난, 속죄', 제3부 '부활, 영생'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곡을 포함해 총 3부 53곡으로 구성돼 있다.

EMK뮤지컬컴퍼니는 오는 12월7일 오후 7시30분 뮤지컬 '엑스칼리버'의 첫 온라인 상영을 진행한다. 지난해 6월 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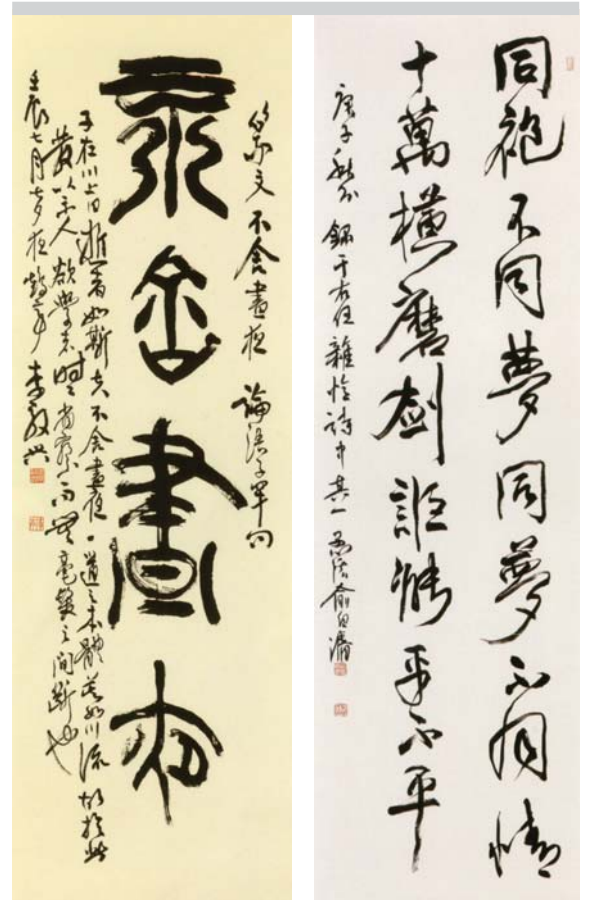
연한 EMK의 세 번째 창작 뮤지컬이다. 바위에 꽂혀 있던 성검 엑스칼리버를 뽑는 전설 속 인물인 아서왕의 전설을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상은 지난해 공연 당시 촬영된 것으로 배우 키이가 아서왕으로 출연하며, 신영숙이 아서왕의 이복 누나 모르가나 역으로 나온다.

또 EMK는 지난 추석연휴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1만5000명의 온라인 관객을 끌어 모은 뮤지컬 '모차르트!'를 앙코르 상영한다. 12월13일 오후 7시30분 박강현, 14일 김준수가 주연으로 나서는 영상을 선보인다.

광주시립오페라단과 국립오페라단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오페라 '라 보엠'은 12월11일 네이버TV 후원 라이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라 보엠'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푸치니가 앙리 무르제의 소설 '보헤미안들의 인생 풍경'을 바탕으로 작곡한 전 4막의 오페라이다.

19세기 파리의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예술이라는 교감으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청춘, 아픔 그리고 사랑을 그리며, 주요 아리아로는 '내 이름은 미미', '그대의 찬 손', '무제타의 왈츠' 등이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돈홍 작 '不舍書夜'

유백준 작 '雜憶'

스승 이돈홍 목적 찾기

학정연우서예회 전시회

12월2일까지 금호갤러리

스승 없이 맞는 첫번째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스승의 숨결을 따라가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학정연우서예회 전시회가 오는 12월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린다.

제 44회 회원전인 이번 전시는 잊을 수 없는 스승인 학정(鶴亭) 이돈홍(1947~2020년)이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후 이뤄지는 첫 회원전이다. 담양 출신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낸 그는 국내의 서단에 큰 족적을 남겼고, 그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매년 주제를 정해 전시회를 열어온 회원들은 이번 전시 주제를 '스승의 목적(墨跡) 찾기'로 잡았다. 제자들은 예전에 학정 선생이 발표했거나 써 둔 작품에서 한 점씩을 뽑아 임시(臨書)를 하기도 하고, 새롭게 자신만의 서체로 표현하면서 스승의 기운을 느꼈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 리얼친 사진작가가 촬영한 학정 선생의 생전 모습과 그의 글씨 중 논어에서 발췌한 '不舍書夜(불사서야)'도 전시된다.

전시에는 학정연우서회 유백준 회장을 비롯해 김종태·강덕원·강영화·강수진 등 7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김시습, 한용운, 두보, 도연명, 백거이, 정약용 등 선현들의 글과 '논어', '채근담' 등에서 차용한 글귀를 다양한 서체로 선보인다. 광성구·김연엽·김형욱·임동호·정인식 고문들도 작품을 출품했으며 김근춘·황영주씨는 첫 작품을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큐 '태안' 27일 광주극장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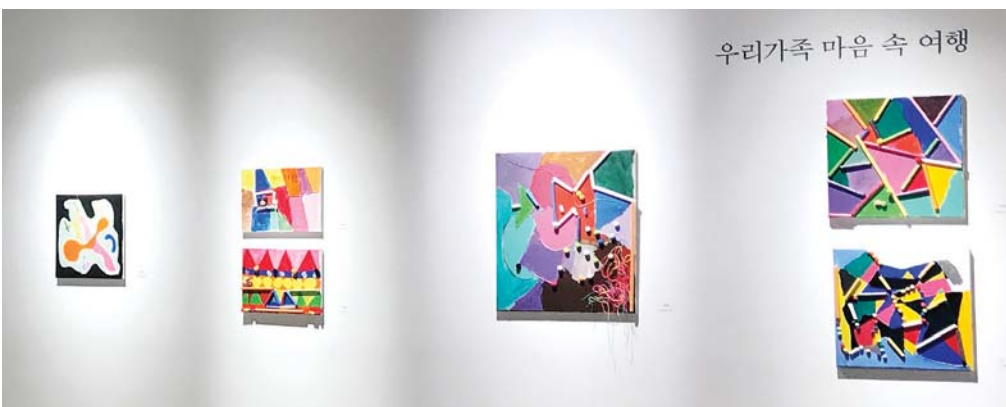
한국전쟁 시기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태안'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이번 상영은 올해 한국전쟁 70주기를 맞아 진행된 전국 순회 상영의 일환이며, 영화는 내년 7월 전국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한다.

작품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충남 태안군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등을 다루며, 세월호 참사 유족인 김영오씨와 태안유족회 이사인 강희권씨가 출연해 사건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다.

이번 영화 상영 후에는 구자환 감독, 그리고 김영오, 강희권씨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사전예약 필수.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드영미술관, 29일까지 '예술 잠 깨우기' 전



올해 '2020 토요일문화교육-주말예술배움터' 사업에 선정됐던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이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결과 전시회를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

주말배움터는 예술적 상상력과 놀이를 통해 일상이 즐거워지는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지역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드영미술관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와 재

료 및 기법의 탐구로 예술감수성을 깨울 수 있도록 '예술 잠 깨우기 프로젝트 -일어나! 이런 ART!'를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젝트는 2기로 나누어 총 15차시로 진행됐으며 모두 30명이 참여해 추상화, 조소, 미디어아트, 행위예술(퍼포먼스) 등을 넘나들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상으로 떠나는 '고구려 고분벽화 문양 여행'

국립문화재연구소, 12월 4일까지 유튜브 공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구려 고분 벽화에 담긴 문양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 문양 여행' 영상을 오는 12월 4일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사진> 이번 영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의 자료를 수집하고, 문양을 연구한 성과를 담은 '천상의 문양예술, 고구려 고분벽화' 도록 발간에 앞서 공개된다. 도록은 오는 12월 4일 발간 예정이다.

다양한 고분벽화의 사진과 그림 도안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영상은 연구를 담당할 학예연구사가 출연해 해설을 진행한다. 1부 '천상의 세계를 그리다'는 천장 벽화에 주목해, 고구려인들의 사후관과 꿈꿨던 천상의 모습이 담긴 다양한 문양들을 소개한다. 2부 '사후세계의 수호신, 사신도'에서는 한국



미술 길잡이로 꼽히는 사진도의 아름다운 회화성과 음악오해를 송사했던 고구려인들의 정신세계를 조명한다. 3부 '인간 세상을 그리다'는 고분 속에 무용도와 수렵도, 씨름도 등을 그린 이유와 장례풍속에 대해 설명한다.

한편 도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자식 포털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